

# 美 전역 '反트럼프 시위'...총격으로 1명 사망

### 50개 주 2천 곳 수 백만 참여...소총 소지자 제압과정서 무고한 희생 포틀랜드 최루탄·고무탄 난무...버지니아에선 시위대에 차량 돌진

미국 전역에서 지난 14일(현지시간) 열린 '트럼프 반대 시위'에 수백만 명이 참여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총격을 비롯해 시위대를 향한 차량 공격 등 여러 사건·사고가 벌어졌다고 미 언론이 15일 전했다.

진보성향 단체로 구성된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집회 주최 측은 전날 미국 전체 50개 주(서) 2000여 곳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저항 시위에 수백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필라델피아와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서 각각 수만 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도심 행진이 이뤄졌으며, 각 지역 경찰은 대부분의 집회가 평화롭게 이뤄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소요 사태가 벌어져 여러 명이 다치기도 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전날 오후 7시 56분께 약 1만명이 모인 도심 집회 현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 희생자의 신원이 유타주 주민인 '아서 폴라사 아 루라'라는 이름의 39세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 사망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AR-15 계열 소총을 소지한 채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24세 남성 아투로 감보아

를 비롯해 총격에 연루된 주최 측 안전관리팀 요원 2명을 체포해 조사한 결과, 감보아를 사건의 원인 제공자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안전관리팀 요원들은 사건 발생 직전 검은 옷에 검은 마스크를 쓴 감보아가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여 눈길을 끌었으며, 배낭에서 AR-15 계열 소총을 꺼내 조작하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수사 당국에 진술했다.

요원들은 총기를 꺼내 감보아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으나, 감보아는 소총을 들어 올리고 거리에 모인 군중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으며, 발사 자세로 총기를 들고 있었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다.

이에 안전관리팀 요원 1명이 감보아를 향해 3발의 총격을 가해 그중 1발이 감보아를 맞혔고, 다른 1발이 시위 참가자인 아서 폴라사 아 루라에게 맞아 무고한 희생자를 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온라인에 공유된 현장 영상에는 총격 소리가 들리자 시위 현장의 군중이 혼비백산해 뿔뿔이 흩어지며 피신하는 모습이 담겼다.

총격 사건 후 경찰은 시위대에 "안전하고 질서 있게" 현장을 떠날 것을 요청했다.

버지니아주 케페퍼에서는 전날 오후 시위대가 집

회 현장을 떠날 무렵 한 SUV 차량이 군중을 향해 돌진하는 바람에 1명이 차에 치여 다쳤다. 경찰은 이 차량 운전자인 21세 남성을 체포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전날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에 수천 명의 시위대가 도심에 모인 가운데 차 한 대가 군중을 향해 돌진해 최소 4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NBC 방송이 전했다. 현장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용의자는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저녁 무렵 일부 시위대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청사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고, 연방 당국 요원들이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섬광탄, 고무탄 등을 발사했다. 시위대도 이에 맞서 물병 등을 던지며 저항했고, 경찰은 이 현장을 '폭동'으로 선언한 뒤 최소 2명을 체포했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두 곳의 시위 현장에서 총 15명이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한 폭행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저녁 무렵 도심에서 경찰이 화학 자극제를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하자 일부 시위대가 돌과 벽돌, 물병 등을 던지며 저항했다. 대부분의 시위대는 야간 통행금지령 시간대에 맞춰 도심 지역을 떠났다.

캐리 배스 LA 시장은 약 3만명이 참여한 다운타운 시위와 도시 내 15곳의 다른 지역에서 열린 집회가 "대체로 평화로웠다"고 CNN에 밝혔다.



지난 14일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열린 '노 킹스' 집회 이후 시위대가 시빅 센터에 머물러 있다. /연합뉴스

LA경찰국(LAPD)은 전날부터 이날 아침까지 35명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다른 3명을 해산 명령 불응·저항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경찰관 3명이 다쳤다.

지난 7일 이후 8일간 LA 도심 시위와 관련해 LAPD가 체포한 인원은 총 561명으로 늘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전날 오전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일부 민주당 소속 주 의원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제기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집회 장소인 주의회 건물을 일시 폐쇄하는 일도 있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전날 주의원 2명이 잇달아 총격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뒤 '노 킹스' 집회가 취소됐다. 총격 용의자의 차 안에서는 '노 킹스'라고 적힌 전단이 발견됐다. /연합뉴스

## 이스라엘-이란 교전 전면전 차단나

### 낮밤 가리지 않고 미사일 공방 이스라엘 공항·이란 외무부 타격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수장 사망"

교전 사흘째인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습을 주고받으며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13일 새벽 이스라엘이 선제공습을 시작한 뒤 양 측은 심야나 이른 오전과 같은 취약 시간대에 상대 방을 공격했으나 사흘째로 접어든 이날부터는 낮에도 과감히 공격을 감행했다.

이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테헤란 시간 기준 이날 정오께 테헤란 도심 발리에아르 광장 주변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오후 3시30분께도 테헤란 북부에서 연쇄적으로 폭발 소리가 났다.

현지 언론들은 테헤란 경찰청이 공습받았으며 정보부 관련 건물도 표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테헤란 도심 공습 약 1시간 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아슈켈론, 하이파를 겨냥해 새로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낮에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녁에도 공방은 이어졌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날 저녁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들을 발사했다고 밝혔다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다.

이란 미사일은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공항도 타격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이란 외무부 건물도 공격받았다. 사이드 카티브 자데 이란 외무차관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이스라엘이 이란 외무부 건물 중 하나를 공격해 민간인 여러 명이 다쳤으며, 그중에는 외교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13일부터 양측간 공습이 계속되면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스라엘 구호 당국은 이날 오전 기준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380명이 부상했다고 집계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전날 이란의 이스라엘 바트암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인 5명도 숨졌다고 밝혔다고 이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란에선 지난 사흘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224명이 사망했다고 이란 보건당국은 밝혔다. 반면 AP 통신은 미국 인권 단체를 인용해 이란에서 최소 406명이 사망하고 65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시진핑, G7 정상회의 견제?

### 16~18일 카자흐 방문...중-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참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18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고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시 주석의 방문은 같은 시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견제하고 글로벌 별사우스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16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는 시 주석은 이날 카심-조마르트 토크야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7일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에 참여하는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국도 참여하는 G7 정상회의가 16~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뤄지는 시 주석의 카자흐스탄 방문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영국 대외정보기관 비밀정보부 사상 첫 여성 수장

### 메트러웰리, 내부 발탁

영국의 대외정보기관 비밀정보부(MI6) 역사상 최초의 여성 수장이 탄생했다.

영국 BBC방송은 MI6 차기 수장으로 블레이즈 메트러웰리(47·사진)가 지명됐다고 전했다. 여성이 MI6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116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 주요 정보기관 중 국내정보 부문인 보안국(MI5)에서는 역대 수장 중 2명이 여성이었고 2023년 5월 취임한 정부통신본부(GCHQ)의 현

수장 앤 키스트-버틀러도 여성이지만, MI6에서 수장 자리를 여성이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메트러웰리는 올해 가을에 제18대 수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메트러웰리는 케임브리지대에서 사회인류학을 공부한 후 1999년 MI6에 입직해 오랫동안 중동과 유럽의 공작 임무를 수행했다. /연합뉴스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